

베트남 최초 정유공장 가동

PetroVietnam, 석유제품 260만톤 생산 ... 6월부터 휘발유 시판

베트남이 처음으로 건설한 정유설비에서 6월부터 휘발유가 생산돼 시판된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에 따르면, 5월25일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PetroVietnam은 Dung Quat 소재 정유설비에서 A90, A92 및 A95 등급의 휘발유를 처음으로 생산해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PetroVietnam은 2009년 2월부터 휘발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생산해 지금까지 디젤 9000톤과 등유 2000톤을 판매했다.

정유설비의 가동률은 6월까지의 70%, 8월까지의 100%로 각각 오를 전망으로 석유제품 생산량이 총 26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총 30억달러를 들여 Dung Quat 소재 정유설비를 건설했으며 석유 내수의 3분의1을 충족할 수 있는 정유 처리능력을 가졌다.

베트남은 산유국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에 정유설비를 보유하지 못하다 2005년 11월부터 정유설비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꿈을 실현하게 됐다.

PetroVietnam 당라탕 회장은 “정유 경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동지역의 투자자들이 유력한 인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5>